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귀중

제 출 일: 2017년 2월 24일

권 유 자: 성 명: 삼성전자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매탄동)
전화번호: 031-200-1114

I. 권유자·대리인·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삼성전자주식회사	보통주	17,981,686	12.78%	본인	자사주

※ 자기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음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이건희	최대주주	보통주	4,985,464	3.54%	최대주주	-
홍라희	최대주주의 배우자	보통주	1,083,072	0.77%	최대주주의 배우자	-
이재용	최대주주의 자	보통주	840,403	0.60%	최대주주의 자	-
삼성생명	계열회사	보통주	10,622,814	7.55%	계열회사	-
삼성생명(특별계정)	계열회사	보통주	467,320	0.33%	계열회사	-
삼성물산	계열회사	보통주	5,976,362	4.25%	계열회사	-
삼성화재	계열회사	보통주	1,856,370	1.32%	계열회사	-
삼성복지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89,683	0.06%	특수관계인	-
삼성문화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37,615	0.03%	특수관계인	-
권오현	등기임원	보통주	1,300	0.00%	등기임원	-
계		보통주	25,960,403	18.45%	-	-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소유 주식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단,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및 정관 변경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

※ 삼성생명(특별계정) 보유 주식 중 일부(27,393주)는 보험업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비고
최승림	-	-	직원	-
이정훈	-	-	직원	-
김은성	-	-	직원	-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비고
박상진	-	-	직원	-
윤주한	-	-	직원	-
오정균	-	-	직원	-

3. 피권유자의 범위

보통주 5,000주 이상 소유주주 전체
(2016년 12월 31일 기준)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5. 기타 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 (시작일) 2017년 3월 2일,

(종료일) 2017년 3월 24일 제48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나.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권유자 또는 대리인이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다. 권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7년 3월 24일 오전 9시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서초동)

삼성전자빌딩 5층 다목적홀

마.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명) 조민희

(부서 및 직위) IR그룹 대리

(연락처) 02-2255-8125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CE 부문]

(국내외 시장여건 등)

TV시장의 Mega Trend인 대형화/고화질화가 Device간, 업체간 경쟁 격화에 따라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력과 브랜드파워를 앞세운 Major 업체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화질 및 슬림 제품에 대한 소비자 Needs가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소재인 LED BLU(Back Light Unit)를 적용하여 TV의 밝기와 명암비를 높이고 소비전력을 낮춘 LED TV가 시장의 Main Stream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TV를 시청하면서 인터넷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스마트 TV 판매에도 주력한 결과, 2010년에는 다양한 App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TV를 출시하고 시장을 주도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소비자의 사용편의 혁신을 위해 음성/제스처 기반의 신개념 입력방식(Smart Interaction)을 도입하여 향후 TV 시장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사용자의 사용이력을 기반으로 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비디오 시청 경험 극대화를 당사의 스마트 TV 지향점으로 지정하고 사용성 혁신, 다양한 비디오 콘텐츠 확보, 플랫폼 성능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TV 기기가 소비하는 콘텐츠 생태계 변화에 따라 TV가 가정 내 종합 엔터테인먼트 센터 기기로서의 역할이 중요시 됨에 따라 방송, OTT VOD 서비스, 클라우드 게임 등을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UX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2016년 스마트 TV는 연결된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리모컨으로 방송 셋톱박스, 블루레이 플레이어 및 주변기기를 컨트롤하고 보다 다양해진 엔터테인먼트 소스를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E 부문 주요제품 시장점유율 추이>

제 품	2016년	2015년	2014년
TV	21.5%	21.0%	22.6%

※ 2014년, 2015년 시장점유율은 외부조사기관인 IHS의 세계시장점유율 자료(수량기준)를 활용하였으며, 2016년 시장점유율은 당사 추정치입니다

(영업의 개황 등)

당사는 2006년이후 2016년까지 11년 연속으로 TV 전체, FPTV, LCD-TV 세계 1위 등 Triple Crown을 지속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세계 최초로 LED TV(LED BLU, 초슬림/초경량화, 친환경)라는 신규 카테고리를 창출하였고, 2010년 1분기에 세계 최초로 3D TV/BDP/안경/BD Title을 동시에 제공하는 3D Total Solution을 출시하여 압도적인 경쟁력 우위로 3D TV 시장을 선점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2010년에 세계 최초 TV용 App Store 'Samsung Apps'를 런칭한 이후 2011년에는 "Your Video", "Social TV", "Search All", "Web Browser"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Hub를 출시하여 "스마트 TV = SAMSUNG"이라는 이미지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당사는 TV 화면을 보면서 운동, 교육 등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다른 디지털 기기와의 연결을 쉽게 하는 "All Share" 기능 강화를 통해 스마트 TV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기존 대비 화질 및 해상도가 혁신적으로 높아진 UHD TV를 출시하였고, 2014년에도 UHD TV, Curved TV 등을 통해 Premium 시장을 주도하며 업계 리더십을 유지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나노입자의 퀀텀닷 SUHD TV를 최초 출시하며 신규 Premium 시장을 창출하고, 2016년은 밝은 계조에서도 디테일이 강한 2세대 퀀텀닷, HDR 1000 기술로 궁극의 화질을 제공하는 SUHD TV 와 Curved TV 확대를 통해 당사의 차별적 화질 경쟁력과 디자인 차별화를 확고히 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TV 시장의 리더십을 지속 유지하였습니다.

[IM 부문]

(국내외 시장여건 등)

스마트폰 시장규모는 2016년 14.5억대에서 2017년에는 약 6% 성장하여 15.4억대 수준이 예상됩니다. 태블릿 시장규모는 2016년 2.1억대에서 2017년 2억대 수준으로 전년비 약 1%의 역성장이 전망됩니다.

(출처 : Strategy Analytics - 스마트폰 '16.12월, 태블릿 '16.11월)

<IM 부문 주요제품 시장점유율 추이>

제 품	2016년	2015년	2014년
HHP	19.2%	20.7%	22.4%

※ 2014년, 2015년, 2016년 시장점유율은 외부조사기관인 Strategy Analytics의 세계시장점유율 자료(수량기준)를 활용하였습니다.

(영업의 개황 등)

당사는 모바일 시장에서 사업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품력 뿐만 아니라 서비스, B2B 등 미래 성장을 위해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Premium에서 보급형까지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라인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1위 위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Flexible Display와 같은 새로운 Form factor 및 차별화된 디자인/UX로 Premium 시장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보급형 시장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장 지배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Gear S3, Gear VR과 같은 웨어러블 및 단말 사용성과 편의성을 더욱 높여주는 Accessory 제품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제품에 더불어 당사 고유의 차별화 서비스인 Samsung Pay와 같은 Mobile Payment 분야와 Cloud, Intelligence, Mobile B2B 시장 등 미래 성장에 대비한 투자도 지속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R&D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제공하여,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7 품질 이슈를 교훈 삼아 혁신은 지속 추구하되 고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다중 안전 설계, 철저한 사전 검증, 전담 조직 신설 등을 통해 유사한 이

슈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시장과 고객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DS 부문]

- 반도체 사업부문

(국내외 시장여건 등)

DRAM은 공급초과 상황에서 모바일 분야의 신제품 수요 증가 및 공급 업체의 선단 공정 확대 지연 등으로 인해 차츰 공급부족 상황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타 공급 업체의 선단공정 안정화가 늦어지고 있고, 고성능 고신뢰성 제품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당사로의 수요 집중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NAND는 SSD 채용 확대, 신규 모바일 기기의 NAND 탑재량 증가 등으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업체의 Planar NAND 추가 공정 개발의 한계 및 경쟁사의 Vertical NAND 확산이 지연되고 있어 Chip 공급 부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사업부문 주요제품 시장점유율 추이>

제 품	2016년	2015년	2014년
DRAM	48.0%	45.3%	39.6%

※ 2014년, 2015년, 2016년 시장점유율은 외부조사기관인 DRAMeXchange의 세계시장 점유율 자료(금액기준)를 활용하였습니다.

(영업의 개황 등)

당사는 2016년 4분기 10나노급 DRAM을 세계 최초로 출시 하였으며, 경쟁사 대비 1년 이상 앞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0나노급 차별화 제품의 추가 개발 및 차세대 DRAM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DRAM 시장의 절대적 위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NAND의 경우 Planar 타입과 Vertical 타입을 동시에 양산하는 등 고객이 원하는 모든 제품을 적기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 대비 앞선 기술력을 확보한 Vertical NAND 는 3세대 적층 제품을 본격 양산하고 있으며, 이를 고성능 SSD에 탑재하여 Premium 시장에 적극 진입하는 한편, 원가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완성도 높은 3bit MLC 제품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사는 선단 공정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제품 확대 및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이용한 응용차별 최적 대응을 통해 메모리 1위 업체로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 DP 사업부문

(국내외 시장여건 등)

2017년은 제품 차별화를 추구하는 주요 스마트폰 고객사들의 OLED 패널 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패널의 고해상도화 및 사이즈 대형화 추세가 이어지겠으며, 플렉서블 제품 등으로의 제품군 확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형 패널 시장의 경우 수급 개선으로 인한 판가 안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UHD TV 시장 성장과 TV Size 대형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형 TFT-LCD 시장을 선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세계 최초로 OLED 제품의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중소형 OLED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DP 사업부문 주요제품 시장점유율 추이>

제품	2016년	2015년	2014년
디스플레이 패널	17.1%	21.1%	20.9%

※ 2014년, 2015년, 2016년 시장점유율은 외부조사기관인 IHS의 세계시장점유율 자료 (대형패널-금액기준)를 활용하였습니다.

(영업의 개황 등)

당사는 지속적인 수출 향상 및 원가 절감, 거래선과의 협업체계 강화 등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사업 경쟁력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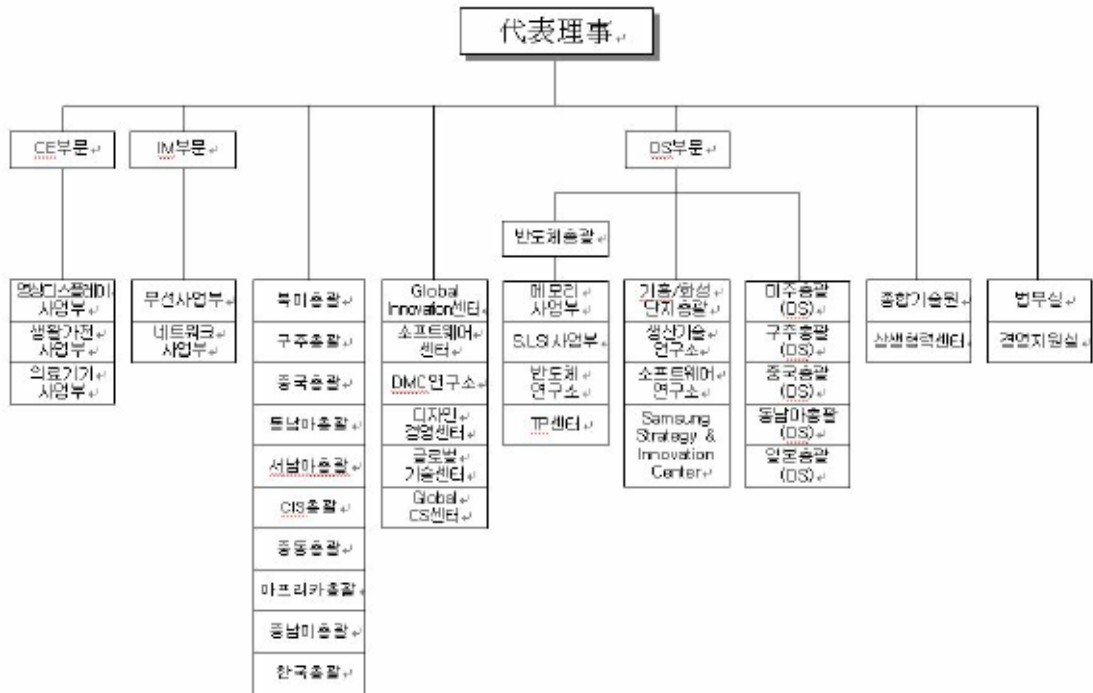
중소형 OLED 패널 사업의 경우, 주요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Product Mix를 개선하고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기술 리더십과 적기 Capa 확보 전략을 바탕으로 플렉서블 제품 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형 LCD 패널 사업은 초대형, UHD, Curved 등 고부가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Frameless/Curved 등 차별화 제품의 판매 확대를 추진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사업의 개요에 기재된 향후 전망치는 사설 경제연구소 및 국가기관 발표자료 등을 기초로 당사에서 분석한 예측자료이므로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조직도

□ 조직도



조직도

※ 전사 조직도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월 28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48 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47 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전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8 (당) 기		제 47 (전) 기	
자 산				
I. 유 동 자 산		141,429,704		124,814,725
1. 현금및현금성자산	32,111,442		22,636,744	
2. 단기금융상품	52,432,411		44,228,800	
3.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3,638,460		4,627,530	
4. 매출채권	24,279,211		25,168,026	
5. 미수금	3,521,197		3,352,663	
6. 선급금	1,439,938		1,706,003	
7. 선급비용	3,502,083		3,170,632	
8. 재고자산	18,353,503		18,811,794	
9. 기타유동자산	1,315,653		1,035,460	
10. 매각예정분류자산	835,806		77,073	
II. 비 유 동 자 산		120,744,620		117,364,796
1.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6,804,276		8,332,480	
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5,837,884		5,276,348	
3. 유형자산	91,473,041		86,477,110	
4. 무형자산	5,344,020		5,396,311	
5. 장기선급비용	3,834,831		4,294,401	
6. 순확정급여자산	557,091		-	
7. 이연법인세자산	5,321,450		5,589,108	
8. 기타비유동자산	1,572,027		1,999,038	
자 산 총 계		262,174,324		242,179,521
부 채				
I. 유 동 부 채		54,704,095		50,502,909
1. 매입채무	6,485,039		6,187,291	
2. 단기차입금	12,746,789		11,155,425	
3. 미지급금	11,525,910		8,864,378	

과 목	제 48 (당) 기		제 47 (전) 기	
4. 선수금	1,358,878		1,343,432	
5. 예수금	685,028		992,733	
6. 미지급비용	12,527,300		11,628,739	
7. 미지급법인세	2,837,353		3,401,625	
8. 유동성장기부채	1,232,817		221,548	
9. 총당부채	4,597,417		6,420,603	
10. 기타유동부채	351,176		287,135	
11. 매각예정분류부채	356,388		-	
II. 비 유 동 부 채		14,507,196		12,616,807
1. 사채	58,542		1,230,448	
2. 장기차입금	1,244,238		266,542	
3. 장기미지급금	3,317,054		3,041,687	
4. 순확정급여부채	173,656		358,820	
5. 이연법인세부채	7,293,514		5,154,792	
6. 장기총당부채	358,126		522,378	
7. 기타비유동부채	2,062,066		2,042,140	
부 채 총 계		69,211,291		63,119,716
자 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86,424,328		172,876,767
I. 자본금		897,514		897,514
1. 우선주자본금	119,467		119,467	
2. 보통주자본금	778,047		778,047	
II. 주식발행초과금		4,403,893		4,403,893
III. 이익잉여금		193,086,317		185,132,014
IV. 기타자본항목		(11,934,586)		(17,580,451)
V. 매각예정분류기타자본항목		(28,810)		23,797
비지배지분		6,538,705		6,183,038
자 본 총 계		192,963,033		179,059,80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62,174,324		242,179,521

- 연결 손익계산서

연결 손익계산서

제 48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8 (당) 기		제 47 (전) 기	
I. 매출액		201,866,745		200,653,482
II. 매출원가		120,277,715		123,482,118
III. 매출총이익		81,589,030		77,171,364
판매비와관리비	52,348,358		50,757,922	
IV. 영업이익		29,240,672		26,413,442
기타수익	3,238,261		1,685,947	
기타비용	2,463,814		3,723,434	
지분법이익	19,501		1,101,932	
금융수익	11,385,645		10,514,879	
금융비용	10,706,613		10,031,771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0,713,652		25,960,995
법인세비용	7,987,560		6,900,851	
VI. 당기순이익		22,726,092		19,060,144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2,415,655		18,694,628	
비지배지분	310,437		365,516	
VII. 주 당 이 익				
기본주당이익(단위:원)		157,967		126,305
희석주당이익(단위:원)		157,967		126,303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8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8 (당) 기		제 47 (전) 기	
I. 연결당기순이익		22,726,092		19,060,144
II. 연결기타포괄손익		1,991,400		76,07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1,014,040		288,047
1.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963,602		263,978	
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50,438		24,06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977,360		(211,976)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3,839)		(414,961)	
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130,337)		(65,330)	
3.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1,131,536		268,315	
III. 총포괄이익		24,717,492		19,136,215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4,310,814		18,804,189	
비지배지분	406,678		332,026	

-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48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항목	매각예정분류 기타자본항목	소 계		
2015.1.1 (전기초)	897,514	4,403,893	169,529,604	(12,729,387)	80,101	162,181,725	5,906,463	168,088,188
I. 총포괄이익								
1. 당기순이익	-	-	18,694,628	-	-	18,694,628	365,516	19,060,144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	-	(348,068)	(24,750)	(372,818)	(42,143)	(414,961)
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12,686	(54,118)	(41,432)	171	(41,261)
4.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266,061	(1,233)	264,828	3,487	268,315
5.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258,983	-	258,983	4,995	263,978
6. 매각예정 분류	-	-	-	(23,797)	23,797	-	-	-
II.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1. 배당	-	-	(3,073,481)	-	-	(3,073,481)	(54,603)	(3,128,084)
2. 연결실체내 자본거래 등	-	-	-	(5,314)	-	(5,314)	423	(4,891)
3. 연결실체의 변동	-	-	-	-	-	-	(152)	(152)
4. 자기주식의 취득	-	-	-	(5,015,112)	-	(5,015,112)	-	(5,015,112)
5. 자기주식의 처분	-	-	-	3,406	-	3,406	-	3,406
6. 주식선택권	-	-	-	(806)	-	(806)	-	(806)
7. 기타	-	-	(18,737)	897	-	(17,840)	(1,119)	(18,959)
2015.12.31 (전기말)	897,514	4,403,893	185,132,014	(17,580,451)	23,797	172,876,767	6,183,038	179,059,805
2016.1.1 (당기초)	897,514	4,403,893	185,132,014	(17,580,451)	23,797	172,876,767	6,183,038	179,059,805
I. 총포괄이익								
1. 당기순이익	-	-	22,415,655	-	-	22,415,655	310,437	22,726,092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	-	(87,706)	(23,797)	(111,503)	87,664	(23,839)
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80,146)	212	(79,934)	35	(79,899)
4.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1,160,316	-	1,160,316	(28,780)	1,131,536
5.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926,280	-	926,280	37,322	963,602
6. 매각예정 분류	-	-	-	29,022	(29,022)	-	-	-
II.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1. 배당	-	-	(3,061,361)	-	-	(3,061,361)	(65,161)	(3,126,522)
2. 연결실체내 자본거래 등	-	-	-	(37)	-	(37)	12,272	12,235
3. 연결실체의 변동	-	-	-	-	-	-	1,790	1,790
4. 자기주식의 취득	-	-	-	(7,707,938)	-	(7,707,938)	-	(7,707,938)
5. 자기주식의 소각	-	-	(11,399,991)	11,399,991	-	-	-	-
6. 기타	-	-	-	6,083	-	6,083	88	6,171
2016.12.31 (당기말)	897,514	4,403,893	193,086,317	(11,934,586)	(28,810)	186,424,328	6,538,705	192,963,033

-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48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8 (당) 기	제 47 (전) 기
I. 영업활동 현금흐름	47,385,644	40,061,761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52,299,610	43,989,083
가. 당기순이익	22,726,092	19,060,144
나. 조정	30,754,471	29,610,971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180,953)	(4,682,032)
2. 이자의 수취	1,405,085	2,151,741
3. 이자의 지급	(443,838)	(748,256)
4. 배당금 수입	256,851	266,369
5. 법인세 납부액	(6,132,064)	(5,597,176)
II. 투자활동 현금흐름	(29,658,675)	(27,167,787)
1.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가	(6,780,610)	(5,762,783)
2.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3,010,003	2,143,384
3.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2,129,551)	(509,349)
4.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789,862	3,999,710
5.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1,741,547)	(132,733)
6.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2,010,356	200,502
7.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1,498,148)	(232,530)
8.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처분	2,280,203	278,009
9.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취득	(84,306)	(137,917)
10. 유형자산의 처분	270,874	357,154
11. 유형자산의 취득	(24,142,973)	(25,880,222)
12. 무형자산의 처분	6,944	1,083
13. 무형자산의 취득	(1,047,668)	(1,501,881)
14.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22,050)	(411,445)
15. 현금의 기타유입	19,936	421,231
III. 재무활동 현금흐름	(8,669,514)	(6,573,509)
1.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1,351,037	3,202,416
2. 자기주식의 취득	(7,707,938)	(5,015,112)
3. 자기주식의 처분	-	3,034
4. 사채 및 장기차입금의 차입	1,041,743	192,474
5. 사채 및 장기차입금의 상환	(252,846)	(1,801,465)
6. 배당금의 지급	(3,114,742)	(3,129,544)
7. 비지배지분의 증감	13,232	(25,312)
IV.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417,243	(524,487)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I+II+III+IV)	9,474,698	5,795,978

과 목	제 48 (당) 기		제 47 (전) 기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2,636,744		16,840,766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2,111,442		22,636,744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8 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47 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전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적 사항 :

가. 연결회사의 개요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69년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어 1975년에 대한민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 및 종속기업(이하 삼성전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의 사업은 CE부문, IM부문, DS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E(Consumer Electronics) 부문은 디지털 TV, 모니터,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IM(Information technology & Mobile communications) 부문은 휴대폰, 통신시스템, 컴퓨터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S(Device Solutions) 부문은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LSI 등의 반도체 사업과 LCD 및 OLED 패널 등의 디스플레이(DP)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회사는 삼성디스플레이 및 Samsung Electronics America 등 169개의 종속기업(주석 1. 나 참조)을 연결 대상으로 하고, 삼성전기 등 38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지분법적용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 종속기업 현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기업명	업종	지분율(%) ^(*)
국내	삼성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생산 및 판매	84.8
	에스유머티리얼스	디스플레이 부품 생산	50.0
	스테코	반도체 부품생산	70.0
	세메스	반도체/FPD제조장비	91.5
	삼성전자서비스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99.3
	삼성전자판매	전자제품 판매	100.0
	삼성전자로지텍	종합물류대행	100.0
	삼성메디슨	의료기기	68.5
	SMC 20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SMC 21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SMC 22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SMC 23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SMC 26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SMC 27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SMC 28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SMC 29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SMC 32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SMC 33호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99.0
	미래로시스템	반도체 공정불량 및 품질관리 소프트웨어	74.7
	에스프린팅솔루션	프린팅솔루션 사업	100.0

(*)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지역	기업명	업종	지분율(%)
미주	Samsung Electronics America(SEA)	전자제품 판매	100.0
	NexusDX(Nexus)	의료기기	100.0
	Samsung Receivables(SRC)	채권관리	100.0
	NeuroLogica	의료기기	100.0
	Samsung Semiconductor(SSI)	반도체/디스플레이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Canada(SECA)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Research America(SRA)	R&D	100.0
	Samsung Mexicana(SAMEX)	전자제품 생산	100.0
	Samsung International(SII)	TV/모니터 생산	100.0
	Samsung Austin Semiconductor(SAS)	반도체 생산	100.0
	Samsung Electronics Mexico(SEM)	전자제품 판매	99.9
	SEMES America(SEMESA)	반도체 장비	100.0
	Samsung Electronics Digital Appliance Mexico(SEDAM)	전자제품 생산	99.9
	Samsung Electronics Latinoamerica Miami(SEMI)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Latinoamerica(SELA)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Venezuela(SEVEN)	마케팅 및 서비스	100.0
	Samsung Electronica Colombia(SAMCOL)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Panama(SEPA)	컨설팅	100.0
	Samsung Electronica da Amazonia(SEDA)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Argentina(SEASA)	마케팅 및 서비스	100.0
	Samsung Electronics Chile(SECH)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Peru(SEPR)	전자제품 판매	100.0
	RT SV CO-INVEST(RT-SV)	벤처기업 투자	99.9
	Quietside	에어컨공조 판매	100.0
	SmartThings	스마트홈기기 판매	100.0
	PrinterOn	프린팅솔루션 판매	100.0
	PrinterOn America	프린팅솔루션 판매	100.0
	Simpres	프린팅솔루션 판매	100.0
	Samsung Pay	모바일 결제 개발 및 서비스	100.0
	Prismview(구 YESCO Electronics)	LED 디스플레이 생산 및 판매	100.0
	Beijing Integrated Circuit Industry International Fund (Beijing Fund)	벤처기업 투자	61.4
	Stellus Technologies	반도체 시스템 생산 및 판매	100.0
Samsung Oak Holdings(SHI)	Holding Company	100.0	
AdGear Technologies	디지털광고 플랫폼	100.0	
Joyent	클라우드 서비스	100.0	

(*)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지역	기업명	업종	지분율(%)
미주	Samsung Next	Holding Company	100.0
	Samsung Next Fund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100.0
	Dacor Holdings	Holding Company	100.0
	Dacor	가전제품 생산 및 판매	100.0
	Dacor Canada	가전제품 판매	100.0
	EverythingDacor.com	가전제품 판매	100.0
	Distinctive Appliances of California	가전제품 판매	100.0
	Viv Labs	인공지능관련 신기술 연구	100.0
	NewNet Communication Technologies Canada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	100.0
유럽/CIS	Samsung Electronics (UK)(SEUK)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Holding(SEHG)	Holding Company	100.0
	Samsung Semiconductor Europe GmbH(SSEG)	반도체/디스플레이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GmbH(SEG)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Iberia(SESA)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France(SEF)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Hungarian(SEH)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Czech and Slovak(SECZ)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Italia(SEI)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Europe Logistics(SELS)	물류	100.0
	Samsung Electronics Benelux(SEBN)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Display Slovakia(SDSK)	디스플레이 임가공	100.0
	Samsung Electronics Romania(SEROM)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Overseas(SEO)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Polska(SEPOL)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Portuguesa(SEP)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Nordic(SENA)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Semiconductor Europe(SSEL)	반도체/디스플레이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Austria(SEAG)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Slovakia(SESK)	TV/모니터 생산	100.0
	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SEEH)	Holding Company	100.0
	Samsung Electronics Poland Manufacturing(SEPM)	가전제품 생산	100.0
Samsung Electronics Greece(SEGR)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Nanoradio Design Center(SNDC)	R&D	100.0	

(*)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지역	기업명	업종	지분율(%)
유럽/CIS	Samsung Electronics Rus(SER)	마케팅	100.0
	Samsung Electronics Rus Company(SERC)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Ukraine(SEU)	마케팅	100.0
	Samsung Electronics Baltics(SEB)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Ukraine Company(SEUC)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R&D Institute Rus(SRR)	R&D	100.0
	Samsung Electronics Central Eurasia(SECE)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Rus Kaluga(SERK)	TV 생산	100.0
	Samsung Electronics(London) Limited(SEL)	Holdng Company	100.0
	Samsung Denmark Research Center(SDRC)	R&D	100.0
	Samsung France Research Center(SFRC)	R&D	100.0
	Samsung Cambridge Solution Centre(SCSC)	R&D	100.0
	Samsung Electronics Switzerland GmbH(SESG)	전자제품 판매	100.0
	PrinterOn Europe	프린팅솔루션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Caucasus(SECC)	마케팅	100.0
	Joyent(UK)	클라우드 서비스	100.0
	중동 및 아프리카	Samsung Electronics West Africa(SEWA)	마케팅
Samsung Electronics East Africa(SEEA)		마케팅	100.0
Samsung Gulf Electronics(SGE)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Egypt(SEEG)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Israel(SEIL)		마케팅	100.0
Samsung Electronics Tunisia(SETN)		마케팅	100.0
Samsung Electronics Pakistan(SEPAK)		마케팅	100.0
Samsung Electronics South Africa(SSA)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Turkey(SETK)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Semiconductor Israel R&D Center(SIRC)		R&D	100.0
Samsung Electronics Levant(SELV)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Maghreb Arab(SEMAG)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South Africa Production(SSAP)		TV/모니터 생산	100.0

(*)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지역	기업명	업종	지분율(%)
아시아 (중국제외)	Samsung Japan(SJC)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R&D Institute Japan(SRJ)	R&D	100.0
	Samsung Electronics Japan(SEJ)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Display (M)(SDMA)	전자제품 생산	100.0
	Samsung Electronics (M)(SEMA)	가전제품 생산	100.0
	Samsung Vina Electronics(SAMNA)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Asia Private(SAPL)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India Electronics(SIEL)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	100.0
	Samsung R&D Institute India-Bangalore(SRI-B)	R&D	100.0
	Samsung Electronics Australia(SEAU)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SEIN)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	100.0
	Samsung Telecommunications Indonesia(STIN)	통신시스템 판매 및 서비스	100.0
	Thai Samsung Electronics(TSE)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	91.8
	Samsung Electronics Philippines(SEPCO)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Malaysia Electronics(SME)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R&D Institute Bangladesh(SRBD)	R&D	100.0
	Samsung Electronics Vietnam(SEV)	전자제품 생산	100.0
	Samsung Electronics Vietnam THANGUYEN(SEVT)	통신제품 생산 및 판매	100.0
	Samsung Medison India(SMIN)	의료기기	100.0
	Samsung Electronics New Zealand(SENZ)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Display Vietnam(SDV)	디스플레이 생산	100.0
	Samsung Electronics HCMC CE Complex(SEHC)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	100.0
Laos Samsung Electronics Sole(LSE)	마케팅	100.0	

(*)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지역	기업명	업종	지분율(%)
중국	Samsung Display Dongguan(SDD)	디스플레이 생산	100.0
	Samsung Display Tianjin(SDT)	디스플레이 생산	95.0
	Samsung Electronics Hong Kong(SEHK)	전자제품 판매	100.0
	Suzhou Samsung Electronics(SSEC)	가전제품 생산	88.3
	Samsung Suzhou Electronics Export(SSEC-E)	가전제품 생산	100.0
	Samsung (China) Investment(SOC)	전자제품 판매	100.0
	Samsung Mobile R&D Center China-Guangzhou (SRC-Guangzhou)	R&D	100.0
	Samsung Tianjin Mobile Development Center(STMC)	R&D	100.0
	Samsung R&D Institute China-Shenzhen(SRC-Shenzhen)	R&D	100.0
	Samsung Electronics Suzhou Semiconductor(SESS)	반도체 임가공	100.0
	Samsung Electronics (Shandong) Digital Printing(SSDP)	프린터 생산	100.0
	Samsung Electronics Huizhou(SEHZ)	전자제품 생산	99.9
	Tianjin Samsung Electronics(TSEC)	TV/모니터 생산	91.2
	Samsung Electronics Taiwan(SET)	전자제품 판매	100.0
	Beijing Samsung Telecom R&D Center(BST)	R&D	100.0
	Tianjin Samsung Telecom Technology(TSTC)	통신제품 생산	90.0
	Shanghai Samsung Semiconductor(SSS)	반도체/디스플레이 판매	100.0
	Samsung Electronics Suzhou Computer(SESC)	전자제품 생산	100.0
	Samsung Suzhou Module(SSM)	디스플레이 임가공	100.0
	Samsung Suzhou LCD(SSL)	디스플레이 생산	60.0
	Shenzhen Samsung Electronics Telecommunication(SSET)	통신제품 생산	95.0
	Samsung Semiconductor (China) R&D(SSCR)	R&D	100.0
	Samsung Electronics China R&D Center(SCRC)	R&D	100.0
	Samsung (China) Semiconductor(SCS)	반도체 생산	100.0
	Samsung Electronics (Beijing) Service(SBSC)	서비스	100.0
	Tianjin Samsung LED(TSLED)	LED 생산	100.0
	Tianjin Samsung Opto-Electronics(TSOE)	카메라/캠코더 생산	90.0
	SEMES(Xian)	반도체 장비	100.0
	Samsung Semiconductor Xian(SSCX)	반도체/디스플레이 판매	100.0

(*)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다. 당기 및 전기의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백만원)

기업명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손실)
삼성디스플레이	43,305,405	8,361,256	24,658,814	1,498,628
Samsung Electronics America(SEA)	21,810,492	9,496,649	34,521,654	246,141
Samsung (China) Investment(SCIC)	13,632,938	11,672,755	8,792,750	298,373
Samsung (China) Semiconductor(SCS)	9,749,448	4,564,793	4,152,137	1,113,218
Samsung Electronics Vietnam(SEV)	9,134,023	1,258,948	19,426,334	2,046,280
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SEEH)	8,643,308	6,661,092	-	350,974
Samsung Semiconductor(SSI)	7,804,698	3,746,687	19,911,135	30,247
Samsung Electronics Vietnam THAINGUYEN(SEVT)	7,646,828	2,179,023	23,563,736	2,641,418
Samsung Electronics Huizhou(SEHZ)	6,174,579	1,106,633	12,971,475	764,426
Shanghai Samsung Semiconductor(SSS)	5,862,409	5,166,385	20,983,314	181,041
Samsung Asia Private(SAPL)	5,528,472	592,320	1,458,176	1,056,956
Samsung Electronica da Amazonia(SEDA)	5,200,799	1,510,972	6,092,245	966,821
Samsung Austin Semiconductor(SAS)	4,940,748	1,293,458	3,586,127	104,747
Samsung India Electronics(SIEL)	4,563,407	2,256,194	8,827,028	753,164
Samsung Display Vietnam(SDV)	3,165,239	3,437,791	5,230,581	(98,102)
Samsung Electronics Europe Logistics(SELS)	2,887,230	2,779,296	13,157,455	36,768
Samsung Suzhou LCD(SSL)	2,499,917	1,376,439	1,494,787	1,091
Thai Samsung Electronics(TSE)	2,079,865	364,518	4,069,078	198,980
Samsung Electronics Slovakia(SESİK)	2,053,467	440,402	3,634,166	115,387
Samsung Electronics Taiwan(SET)	1,857,017	1,540,478	3,533,924	(36,178)
Samsung Electronics HCMC CE Complex(SEHC)	1,814,566	1,572,982	2,010,442	118,091
Samsung Electronics Hungarian(SEH)	1,743,979	633,975	2,441,881	89,712
Samsung Electronics GmbH(SEG)	1,621,827	1,618,305	6,257,480	2,187
Samsung Display Dongguan(SDD)	1,584,504	518,511	5,187,954	199,922
Samsung Electronics (UK)(SEUK)	1,526,879	1,103,579	4,731,464	107,243

(2) 전기

(단위: 백만원)

기업명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손실)
삼성디스플레이	39,225,460	6,586,259	26,397,111	1,673,165
Samsung Electronics America(SEA)	14,875,687	7,562,099	35,766,374	268,083
Samsung (China) Investment(SOIC)	12,748,395	11,040,055	11,461,304	(77,629)
Samsung (China) Semiconductor(SCS)	9,742,388	5,537,446	2,610,462	171,644
Samsung Semiconductor(SSI)	8,288,391	4,379,980	21,724,671	(32,056)
Samsung Electronics Vietnam(SEV)	7,829,507	1,155,075	18,431,838	1,948,071
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SEEH)	6,989,207	5,223,523	-	(31,925)
Samsung Electronics Vietnam THAINGUYEN(SEVT)	6,571,798	3,940,926	19,379,347	1,592,920
Samsung Electronics Huizhou(SEHZ)	6,192,974	1,738,095	17,949,623	722,700
Samsung Austin Semiconductor(SAS)	6,179,289	2,746,852	3,045,453	94,698
Samsung Asia Private(SAPL)	4,227,798	504,256	1,392,926	957,734
Shanghai Samsung Semiconductor(SSS)	3,792,437	3,207,942	14,372,358	141,232
Samsung India Electronics(SIEL)	3,723,127	2,204,333	8,008,884	326,462
Samsung Electronica da Amazonia(SEDA)	3,114,334	1,021,869	5,634,385	322,939
Samsung Suzhou LCD(SSL)	2,784,122	1,634,304	1,024,881	76,099
Tianjin Samsung Telecom Technology(TSTC)	2,075,123	778,133	6,963,943	146,972
Samsung Electronics Europe Logistics(SELS)	1,894,614	1,793,917	12,943,676	(7,745)
Thai Samsung Electronics(TSE)	1,889,410	416,382	3,949,756	179,527
Samsung Electronics Slovakia(SESK)	1,888,341	373,886	3,480,848	107,968
Samsung Electronics GmbH(SEG)	1,820,922	1,762,978	6,047,305	(1,630)
Samsung Display Dongguan(SDD)	1,276,263	384,963	4,649,277	130,635
Samsung Electronics Benelux(SEBN)	1,264,497	291,332	2,148,502	42,790
Samsung Electronics Hungarian(SEH)	1,254,673	231,785	3,029,047	97,474
Samsung Electronics Taiwan(SET)	1,253,480	918,482	4,258,650	44,025
Samsung Electronics (UK)(SEUK)	1,133,512	745,126	4,656,990	106,413

라.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1)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 범위에 신규로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기업명	사유
국내	SMC 32호 신기술투자조합	설립
	SMC 33호 신기술투자조합	설립
	미래로시스템	인수
	에스프린팅솔루션	분할
미주	Samsung Oak Holdings(SHI)	설립
	AdGear Technologies	인수
	Joyent	인수
	Joyent Canada	인수
	Samsung Next	설립
	Samsung Next Fund	설립
	Dacor Holdings	인수
	Dacor	인수
	Dacor Canada	인수
	EverythingDacor.com	인수
	Distinctive Appliances of California	인수
	Viv Labs	인수
	NewNet Communication Technologies Canada	인수
유럽/CIS	Joyent(UK)	인수
아시아 (중국제외)	Laos Samsung Electronics Sole(LSE)	설립
중국	Samsung Semiconductor Xian(SSCX)	설립

(2)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 범위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기업명	사유
국내	SMC 14호 신기술투자조합	청산
미주	Grandis	청산
	Joyent Canada	청산
유럽/CIS	Samsung Russia Service Centre(SRSC)	합병(*1)
	SonoAce Deutschland(SDG)	청산
	Samsung Electronics Kazakhstan(SEK)	합병(*4)
아시아 (중국제외)	Samsung Telecommunications Malaysia(STM)	청산
	Future Technology & Service	청산
중국	Samsung R&D Institute China-Xian(SRC-Xian)	합병(*2)
	Samsung Electronics Shanghai Telecommunication(SSTC)	합병(*3)

(*1) 연결회사의 종속기업 Samsung Electronics Rus Company(SERC)는 2016년 2월 1일자로 종속기업 Samsung Russia Service Centre(SRSC)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의 종속기업 Samsung (China) Semiconductor(SCS)는 2016년 7월 중 종속기업 Samsung R&D Institute China-Xian(SRC-Xian)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3) 연결회사의 종속기업 Samsung (China) Investment(SCIC)는 2016년 9월 중 종속기업 Samsung Electronics Shanghai Telecommunication(SSTC)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4) 연결회사의 종속기업 Samsung Electronics Central Eurasia(SECE)는 2016년 12월 중 종속기업 Samsung Electronics Kazakhstan(SEK)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

다음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가.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중요성에 따라 공시항목의 생략, 추가, 통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주식공시 순서 등에 대한 일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채택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나.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개정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6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하고 있으며,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향후 추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재무영향을 분석할 예정이고,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연결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112,219,719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10,442,736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112,219,719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6년 12월 31일 현재 위 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 3,743,173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6년 12월 31일 현재 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

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6,699,563백만원이고, 2016 회계연도 중 매도가능지분상품 관련 미실현평가손익 631,601백만원이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었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연결회사는 매도가능지분상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 투자 목적의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 기준 해당 지분상품과 관련된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 되지 않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의 잔액은 1,390,624백만원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없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어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

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금융부채 46,944,824백만원 중 417,399백만원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고, 2016 회계연도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61,221백만원의 공정가치 상승을 당기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는 대부분 만기가 짧고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이 미미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부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 (*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종료일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2016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 중에 있으며 그 중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향후 추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재무영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의 IM(Information technology & Mobile communications)부문은 휴대폰, 통신시스템, 컴퓨터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등을 제작 및 설치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016 회계연도 중 관련 수익이 총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고객과의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제작 등의 통합 계약에서 (1) 제품 판매, (2) 설치용역, (3) 유지보수 등과 같이 기술지원으로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연결실체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제품 및 상품 판매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3)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연결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가.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연결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나.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자본거래, 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불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중 취득한 지분 해당액과의 차이는 자본에 계상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 또한 자본에 반영됩니다.

다.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공정가치는 해당 지분이 후속적으로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의 최초 인식시 장부가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전에 계상하고 있던 기타포괄손익의 금액은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를 직접 처분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인식되었던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손익 또는 자본으로 재분류됩니다.

라. 비지배지분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회사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회사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마.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지배력은 없는 모든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내지 50%를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 기업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바.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가.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KRW)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KRW)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 외화거래와 보고기간 종료일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다.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회사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1)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2)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균환율이 거래일의 전반적인 누적환율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사치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3) 위 1), 2)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현재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가. 분류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그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최초 인식시점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연결회사는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목적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외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상품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경영진이 처분할 의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나.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자는 금융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배당금은 연결회사의 배당금 수취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기타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라. 금융상품의 제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2.7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2.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고자산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유희생산설비원가나 폐기비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제품수요 등을 검토하여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0 매각예정분류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연결회사가 추정한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됩니다. 토지는 상각되지 않으며, 자본화차입금이자를 포함한 장기건설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원가는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됩니다.

각 자산별로 연결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표추정내용연수
건물 및 구축물	15, 30 년
기 계 장 치	5 년
기 타	5 년

연결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2 무형자산

영업권은 취득시점에 취득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사업 등의 순식별가 능자산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에 해 당하며 종속기업의 사업취득과 관련된 건은 무형자산으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지분 취득과 관련한 건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 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특허권, 상표권 및 기타무형자산 등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각 자산별 대표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표추정내용연수
개 발 비	2년
특허권, 상표권 및 기타무형자산	5년 ~ 10년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4 금융부채

가.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5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2개월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6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공정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7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연결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18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당 기금이 현재나 과거 기간의 종업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결회사는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상장되거나 비상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연금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나 계약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지급된 이후에 연결회사는 더 이상의 미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선급 기여금은 초과 기여금으로 인해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자산)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과소적립액(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 측정시 최초인식 금액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연결회사의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1 파생상품

연결회사는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자본항목으로 이연하고 있습니다.

2.22 배당금

배당금은 연결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자본금

보통주와 상환의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는 종속기업이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연결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연결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4 수익인식

수익은 주로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판매장려금 및 가격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매와 관련된 우발상황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여 수익금액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판매 계약 등의 각 구성항목이 다수인 경우 각 구성항목의 공정가치는 그 구성항목이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경우의 현행 시장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각 구성항목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총계약대에서 제공하지 않은 구성항목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가액을 근거로 제공한 구성항목의 공정가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 재화의 판매

연결회사는 제품 및 상품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과거에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여 판매시점에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여 추정한 가격할인 및 반품금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용역의 제공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총 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누적발생원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해 인식됩니다.

라.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수익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과 대응될 수 있는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처리하고, 정부보조금 관련 이연수익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6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27 보고부문

보고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부문별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부문에 배부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8 연결채무제표의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채무제표는 2017년 1월 24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설치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은 연결회사가 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익은 장기프로젝트의 초기단계, 프로젝트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판매보증충당부채

연결회사는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미래와 현재의 보증의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선의 추정치는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연결회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을 기초로 다양한 평가기법 및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순확정급여부채(자산)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순원가(이익)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은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매년 말 우량회사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할인율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정산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추정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관련된 다른 주요한 가정들은 일부 현재의 시장 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 영업권의 손상

연결회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 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바.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식사항은 2월 28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대차대조표(별도 재무상태표)

별도 재무상태표

제 48 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47 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전자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8 (당) 기		제 47 (전) 기	
자 산				
I. 유 동 자 산		69,981,128		67,002,055
1. 현금및현금성자산	3,778,371		3,062,960	
2. 단기금융상품	30,170,656		27,763,589	
3.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		3,021,210	
4. 매출채권	23,514,012		20,251,464	
5. 미수금	2,319,782		2,314,823	
6. 선급금	814,300		1,105,216	
7. 선급비용	2,375,520		1,980,305	
8. 재고자산	5,981,634		6,578,112	
9. 기타유동자산	743,163		847,303	
10. 매각예정분류자산	283,690		77,073	
II. 비 유 동 자 산		104,821,831		101,967,575
1.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913,989		3,205,283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48,743,079		44,107,398	
3. 유형자산	47,228,830		45,148,629	
4. 무형자산	2,891,844		3,407,229	
5. 장기선급비용	3,507,399		3,845,119	
6. 순확정급여자산	557,091		56,174	
7. 이연법인세자산	110,239		865,903	
8. 기타비유동자산	869,360		1,331,840	
자 산 총 계		174,802,959		168,969,630
부 채				
I. 유 동 부 채		34,076,122		29,630,488
1. 매입채무	6,162,650		3,887,983	
2. 단기차입금	9,061,167		7,127,527	
3. 미지급금	7,635,740		5,952,236	
4. 선수금	200,445		160,990	

과 목	제 48 (당) 기		제 47 (전) 기	
5. 예수금	389,528		341,806	
6. 미지급비용	6,284,646		6,126,350	
7. 미지급법인세	2,055,829		1,802,344	
8. 유동성장기부채	5,854		5,666	
9. 총당부채	2,221,717		4,207,745	
10. 기타유동부채	58,546		17,841	
II. 비 유 동 부 채		3,180,075		2,910,887
1. 사채	58,542		62,326	
2. 장기미지급금	2,808,460		2,387,934	
3. 장기총당부채	312,467		457,290	
4. 기타비유동부채	606		3,337	
부 채 총 계		37,256,197		32,541,375
자 본				
I. 자본금		897,514		897,514
1. 우선주자본금	119,467		119,467	
2. 보통주자본금	778,047		778,047	
II. 주식발행초과금		4,403,893		4,403,893
III. 이익잉여금		140,747,574		143,629,177
IV. 기타자본항목		(8,502,219)		(12,526,126)
V. 매각예정분류기타자본항목		-		23,797
자 본 총 계		137,546,762		136,428,255
부채와자본총계		174,802,959		168,969,630

- 별도 손익계산서

별도 손익계산서

제 48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8 (당) 기		제 47 (전) 기	
I. 매출액		133,947,204		135,205,045
II. 매출원가		97,290,644		99,659,336
III. 매출총이익		36,656,560		35,545,709
판매비와관리비	23,009,124		22,147,494	
IV. 영업이익		13,647,436		13,398,215
기타수익	2,185,600		1,543,190	
기타비용	1,289,594		792,058	
금융수익	5,803,751		4,917,385	
금융비용	5,622,119		4,714,115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725,074		14,352,617
법인세비용	3,145,325		2,114,148	
VI. 당기순이익		11,579,749		12,238,469
VII.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단위:원)		81,602		82,682
희석주당이익(단위:원)		81,602		82,680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제 48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8 (당) 기		제 47 (전) 기	
I. 당기순이익		11,579,749		12,238,469
II. 기타포괄손익		308,057		(401,29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729,634		225,048
1. 순확정급여자산 재측정요소	729,634		225,04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421,577)		(626,344)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421,577)		(626,344)	
III. 총포괄이익		11,887,806		11,837,173

- 별도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48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항목	매각예정분류 기타자본항목	총 계
2015.1.1 (전기초)	897,514	4,403,893	134,464,189	(7,113,271)	24,750	132,677,075
I.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12,238,469	-	-	12,238,469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	-	(601,594)	(24,750)	(626,344)
3. 순확정급여자산 재측정요소	-	-	-	225,048	-	225,048
4. 매각예정분류	-	-	-	(23,797)	23,797	-
II.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1. 배당	-	-	(3,073,481)	-	-	(3,073,481)
2. 자기주식의 취득	-	-	-	(5,015,112)	-	(5,015,112)
3. 자기주식의 처분	-	-	-	3,406	-	3,406
4. 주식선택권	-	-	-	(806)	-	(806)
2015.12.31 (전기말)	897,514	4,403,893	143,629,177	(12,526,126)	23,797	136,428,255
2016.1.1 (당기초)	897,514	4,403,893	143,629,177	(12,526,126)	23,797	136,428,255
I.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11,579,749	-	-	11,579,749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	-	(397,780)	(23,797)	(421,577)
3. 순확정급여자산 재측정요소	-	-	-	729,634	-	729,634
II.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1. 배당	-	-	(3,061,361)	-	-	(3,061,361)
2. 자기주식의 취득	-	-	-	(7,707,938)	-	(7,707,938)
3. 자기주식의 소각	-	-	(11,399,991)	11,399,991	-	-
2016.12.31 (당기말)	897,514	4,403,893	140,747,574	(8,502,219)	-	137,546,762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48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8 (당) 기		제 47 (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38,248		12,089,583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0		30	
2. 분기배당금 당기 - 주당배당금(률) : 1,000원(20%) 전기 - 주당배당금(률) : 1,000원(20%)	(141,540)		(148,916)	
3. 자기주식 소각	(11,399,991)		-	
4. 당기순이익	11,579,749		12,238,469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3,812,135		-
1. 기업합리화적립금	3,812,135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3,850,352		12,089,553
1. 기업합리화적립금	-		3,000,000	
2. 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당기 - 보통주 : 27,500원(550%) 우선주 : 27,550원(551%) 전기 - 보통주 : 20,000원(400%) 우선주 : 20,050원(401%)	3,850,352		2,919,821	
3.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5,000,000	
4. 시설적립금	-		1,169,732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1		30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전기 처분확정일: 2016년 3월 11일).

- 별도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48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8 (당) 기		제 47 (전) 기	
I. 영업활동 현금흐름		23,984,804		19,287,521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24,901,464		19,756,969	
가. 당기순이익	11,579,749		12,238,469	
나. 조정	14,910,093		13,087,462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588,378)		(5,568,962)	
2. 이자의 수취	622,118		890,456	
3. 이자의 지급	(208,010)		(153,195)	
4. 배당금 수입	903,758		1,914,856	
5. 법인세 납부액	(2,234,526)		(3,121,565)	
II. 투자활동 현금흐름		(14,240,450)		(14,003,962)
1.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가	(1,407,068)		(2,309,495)	
2.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3,010,003		2,143,384	
3.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700,000		1,700,000	
4.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1,700,000)		-	
5.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692,547		78,885	
6.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477,744)		(17,303)	
7.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처분	2,416,678		311,310	
8.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취득	(4,648,008)		(2,334,935)	
9. 유형자산의 처분	335,288		473,836	
10. 유형자산의 취득	(12,161,084)		(12,887,965)	
11. 무형자산의 처분	6,357		990	
12. 무형자산의 취득	(1,046,676)		(1,365,674)	
13. 현금의 기타유입	39,257		203,005	
III. 재무활동 현금흐름		(9,037,006)		(3,854,887)
1.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1,737,871		4,236,095	
2. 자기주식의 취득	(7,707,938)		(5,015,112)	
3. 자기주식의 처분	-		3,034	
4. 사채의 상환	(5,860)		(5,496)	
5. 배당금의 지급	(3,061,079)		(3,073,408)	
IV.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8,063		(9,030)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I+II+III)		715,411		1,419,642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062,960		1,643,318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778,371		3,062,960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8 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47 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전자주식회사

1. 일반적 사항 :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69년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어 1975년에 대한민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업은 CE부문, IM부문, DS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E(Consumer Electronics) 부문은 디지털 TV, 모니터,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IM(Information technology & Mobilecommunications) 부문은 휴대폰, 통신시스템, 컴퓨터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S(Device Solutions) 부문은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LSI 등의 반도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이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가.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중요성에 따라 공시항목의 생략, 추가, 통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주식공시 순서 등에 대한 일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채택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에 따라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범주별로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방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채택으로 회사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나.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정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6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하고 있으며,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향후 추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재무영향을 분석할 예정이고,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60,879,693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913,989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60,879,693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6년 12월 31일 현재 위 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회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 4,221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6년 12월 31일 현재 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최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909,768백만원이고, 2016 회계연도 중 매도가능지분상품 관련 미실현평가손익 47,600백만원이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었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회사는 매도가능지분상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투자 목적의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 기준 해당 지분상품과 관련된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 되지 않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의 잔액은 199,650백만원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대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없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어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없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는 대부분 만기가 짧고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이 미미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부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 (*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종료일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2016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 중에 있으며 그 중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향후 추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재무영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의 IM(Information technology & Mobile communications)부문은 휴대폰, 통신 시스템, 컴퓨터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등을 제작 및 설치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016 회계연도 중 관련 수익이 총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고객과의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제작 등의 통합 계약에서 (1) 제품 판매, (2) 설치용역, (3) 유지보수 등과 같이 기술지원으로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변동대가

회사는 제품 및 상품 판매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3)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2.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회사는 삼성디스플레이 및 Samsung Electronics America 등 169개의 종속기업과 삼성전기 등 38개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원가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가.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회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KRW)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KRW)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 외화거래와 보고기간 종료일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현재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가. 분류

회사는 금융자산을 그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최초 인식시점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회사는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목적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외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상품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경영진이 처분할 의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나.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자는 금융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배당금은 회사의 배당금 수취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기타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되어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라. 금융상품의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2.7.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2.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고자산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작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유희생산설비원가나 폐기비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제품수요 등을 검토하여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0 매각예정분류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회사가 추정한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됩니다. 토지는 상각되지 않으며, 자본화차입금이자를 포함한 장기건설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원가는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됩니다.

각 자산별로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표추정내용연수
건물 및 구축물	15, 30 년
기 계 장 치	5 년
기 타	5 년

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 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2 무형자산

이전대가와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특허권, 상표권 및 기타무형자산 등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각 자산별 대표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표추정내용연수
개 발 비	2 년
특허권, 상표권 및 기타무형자산	5 년 ~ 10 년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4 금융부채

가.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5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2개월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6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공정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7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18 순확정급여자산

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채무상태표에 계상된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초과적립액이며,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합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 측정시 최초인식 금액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회사의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1 파생상품

회사는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자본항목으로 이연하고 있습니다.

2.22 배당금

배당금은 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자본금

보통주와 상환의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4 수익인식

수익은 주로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판매장려금 및 가격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 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매와 관련된 우발상황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여 수익금액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판매 계약 등의 각 구성항목이 다수인 경우 각 구성항목의 공정가치는 그 구성항목이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경우의 현행 시장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각 구성항목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총계약대가에서 제공하지 않은 구성항목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가액을 근거로 제공한 구성항목의 공정가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 재화의 판매

회사는 제품 및 상품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과거에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여 판매시점에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여 추정된 가격할인 및 반품금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용역의 제공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총 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누적발생원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수익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과 대응될 수 있는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처리하고, 정부보조금 관련 이연수익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6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27 재무제표의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7년 1월 24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익인식

회사는 설치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은 회사가 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익은 장기프로젝트의 초기단계, 프로젝트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판매보증충당부채

회사는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 미래와 현재의 보증의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선의 추정치는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회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주요한 시장상황을 기초로 다양한 평가기법 및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라. 순확정급여자산

순확정급여자산은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순원가(이익)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은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순확정급여자산의 장부 금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회사는 매년 말 우량회사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할인율은 순확정급여자산의 정산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추정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순확정급여자산과 관련된 다른 주요한 가정들은 일부 현재의 시장 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 영업권의 손상

회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바. 법인세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월 28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당 기(49기)	전 기(48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9(5)	9(5)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550억원	390억원

* 당기(49기) 보수 한도 총액 550억 : 일반보수 300억, 장기성과보수 250억
전기(48기) 보수 한도 총액 390억 : 일반보수 300억, 장기성과보수 90억